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 18,15-20 참조)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자하시고 용서하는 분이시라고 배웠지만 마음속 깊이 그 자비를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주 예수님께 있고, 죄인에게 하느님의 용서를 전해 줄 사람은 예수님의 손발이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김천평화성당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예제 33,7-9

제2독서 로마 13,8-10

복음 마태 18,15-20

입당송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화답송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수레바퀴

김두신 요한 신부 | 연일본당 주임

다할 수 없는 의무, 이웃을 위한 사랑이 하느님의 법을 완성한다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경천애인의 선대의 역사를 소각하고 맹자의 역성혁명론과 주자학을 통치철학으로 삼은 사대주의 조선은 현실과 괴리된 이중적 세계관, 정쟁과 반대파 제거를 위한 학문, 소아적인 인간군상을 양산하였습니다. 임진과 병자 양란 후 백성을 버렸던 왕과 유림들은 폐단에 대한 자성보다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고, 수레 위의 허송세월을 통해 나라와 백성을 일본에 넘기는 식민의 길과 오늘의 술한 난제를 만들었습니다. 정조 사후, 탕평책도 무산된 신유박해(1801) 때,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며 경상도 장기현(포항)으로 유배된 다산은 148수의 시(詩)를 통해 피폐해진 백성을 수탈하는 무능한 조정과 탐관오리들의 매관매직과 가렴주구에 혈안이 된 목민관들의 부패를 통탄합니다.

세월호와 같은 지속적인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국가관이 없는 공직자와 전근대적인 정치, 언론과 종교의 지식선도형(현장을 도외시하는 풍조) 태도, 원칙과 양심보다 지연, 혈연, 학연에 매인 탐욕, 그리고 자정능력 상실 때문입니다. 부패는 이웃과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남 탓하기에 앞서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과 단절된 탁상행정과 현장의 양심적 전문가들이 절

망하는 풍토에서,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실무를 경험한 현장전문가들이 대책과 법안과 예산에 참여하는 현장선도형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정상화는커녕 젊은 세대의 희망도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을 것이며, 마음을 모으는(사랑을 구하는) 일이면 다 들어 주시겠다는 현장선도형 말씀을 하십니다. 높고 먼 곳이 아니라 낮고 가까운 곳에 하느님이 계시기에, 교회부터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고 형제애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명품 백과 무상급식을 동시에 바라지 않는 자긍심을 갖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뇌물과 부정한 수단을 거부하며 거짓과 탐욕에서 정직과 근검절약과 봉사로 나아갈 때, 가정과 교회, 사회의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단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돌발이나 진흙수렁이 수레바퀴의 파손과 이탈을 일으키지만, 재정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 목적지향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현장의 봉사의 수레바퀴이며, 수레 위가 되려 할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봉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레 위에 하느님을 모시고 서로의 바퀴 상태를 헤아리며 사랑하는 보람으로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필요**

최창덕 신부의 전례 이야기④

참회

최창덕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 가톨릭신학원 원장

십자 성호와 인사에 이어지는 미사 전례의 순서는 참회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3-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참회를 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니다.” 죄 고백 권고 후에는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 침묵은 우리 스스로의 지난 잘못을 알아내고 생활을 반성케 하여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게 합니다. 침묵은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침묵을 잃어버리면 하느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침묵과 반성은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하느님과 이웃을 다시 찾게 만들어줍니다.

죄악은 인간을 하느님과 동료 인간들로부터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악을 제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련한 처지를 함께 큰 소리로 외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외침을 때로는 공동 죄 고백으로써, 때로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참회 (나) 양식)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이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1요한 1,8).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거룩한 미사전례 시작 때 자신의 잘못들을 알아내어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청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또한 필요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의 밝음이 환히 드러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용서청할 때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뿐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을 고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살인하지도 않았으며,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정한 짓을 않았으며, 주일미사를 꺾지도 않았습니다.”와 같은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고백의 기도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넓혀 줍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행위를 소홀히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척도와 반침이 되지 못했다는 데 우리의 잘못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중남미 대부분 나라에서 그렇듯이 제가 있던 볼리비아에서도 여아(女兒)의 15살 생일은 엄청 화려하게 사나흘을 지냅니다. 가난해서 빛을 낼지언정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생일 축제입니다.

그곳 소임을 마칠 즈음 본당 15주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어에는 남성, 여성 구분이 있는데 ‘본당’은 여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본당이 15살 소녀가 된 셈입니다. 축제를 좋아하는 교우들과 사는 본당 신부가 어찌 그냥 넘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15살 축제를 교우들과 함께 계획했습니다. 일단은 15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기로 한 날을 중심으로 계획들이 하나씩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립 때부터의 본당 역사를 영상으로 정리하자는 계획부터, 미사 후 새로 완공된 본당 대강당과 교리실 축복식, 역대 신부님들의 안부와 축하 인사를 편지나 영상으로 듣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공동체가 기념 미사와 축제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자는 것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계획에 따라 20개쯤

되는 공동체에서 각각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상 참석인원은 2,000명! 메뉴는 우리나라 볶음밥과 비슷한 ‘마하디포’ 한 가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전야제가 무사히 잘 끝나고 15주년 미사가 봉헌되는 날, 교구장님 대신 보좌주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야 말로 구름같이 모인 교우들과 함께 기념 미사가 감동적으로 봉헌되고 이어서 강당과 교리실 축복, 15주년을 상징하는 축하 케이크 15개의 절단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춤(왈츠)을 추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공동체 별로 준비해 온 점심을 나눌 때가 되자 안내 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은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교우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에 달랑 준비된 음식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미사를 주례하신 주교님께서도 함께 계셨는데, 교우들과 똑같은 메뉴와 똑같은 일회용 그릇에 단지 계란 프라이만 하나 더 추가된 점심을 드셨습니다.

함께 나눈 음식은 아주 소박했을 뿐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니다. 고작 일회용 도시락에 담긴 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한 그 시간은 더없이 값비싸고 화려한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너나할 것 없이 환하게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라서 좋구나!’ 하는 것이 그런 것인 줄 알고 있었지만..... **끝**

배려로 얻은 성공

남편의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워진 미우라 아야코는 고심 끝에 동네에 작은 가게 하나를 냈습니다. 주인이 정직하고 친절하게 물건을 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은 점점 많아졌고,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놓으며 하루 종일 정신없이 팔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여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은 우리 때문에 이제 손님이 거의 없대. 저 건너편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는 군.”

이 말을 듣고 미우라 아야코는 물건을 트럭으로 주문하지 않았고, 파는 물건의 종류도 줄여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건은 건너편 가게에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 후 장사로부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그녀는 좋아하던 독서에 빠질 수 있었고, 구멍가게 안채에서 틈틈이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빙점>이라는 작품을 세상에 내어 놓았고 일본 열도를 들쭉게 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궤도**



금주의 성인

9월 7일	복자 랄프 코비(순교자, 1598~1644년), 성녀 레지나(동정 순교자, 오뮈, 300년경) 성 에보르시오(주교, 오를레앙, 4세기)
9월 8일	성 디시보드(주교, 빙엔, 700년경), 성 세르지오 1세(교황, 701년) 성 에우세비오(순교자, 가자, 362년경), 성 하드리아노(순교자, 니코메디아, 304년경) 성 코르비니아노(주교, 선교사, 프라이징, 680~730년)
9월 9일	성 고르고니오(순교자, 니코메디아, 303년), 복녀 세라피나 스포르차(과부, 1432~1478년) 성 이사악(수사, 아르메니아, 439년), 성 치아란(신부, 수도원장, 클론맥노이즈, 516~556년) 성 베드로 클라베르(신부, 선교사, 콜롬비아, 1580~1654년)
9월 10일	성 니콜라오(은수자, 증거자, 톨렌티노, 1245~1305년), 성녀 메노도라(순교자, 304년) 성녀 님포도라(동정 순교자, 304년), 성 살비오(주교, 알비, 584년) 성녀 풀체리아 아우구스타(동정녀, 황후, 399~453년)
9월 11일	성 다니엘(수도원장, 주교 뱅저, 584년), 성녀 테오도라(통회자, 은수자, 알렉산드리아) 성 프로토(하인, 순교자, 로마, 257년), 성 파프누시오(주교, 증거자, 테베, 350년경)
9월 12일	성 귀도(평신도, 안더레흐트, 1012년), 성 아일베(주교, 엠리, 6세기)
9월 13일	성 마우릴리오(주교, 양제, 453년), 성 베네리오(은수자, 7세기) 성 아마토(주교, 시옹, 690년), 성 에울로지오(주교, 알렉산드리아, 608년) 성 요한 크리스스토모(총대주교, 교회학자, 교부, 콘스탄티노플, 344~4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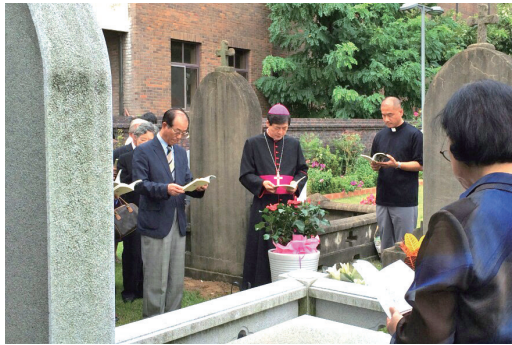


■ 교구 사목국 가정담당 사무실 축복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8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대건관(구. 대건 인쇄출판사) 2층에 위치한 교구 사목국 가정담당 사무실 축복식을 거행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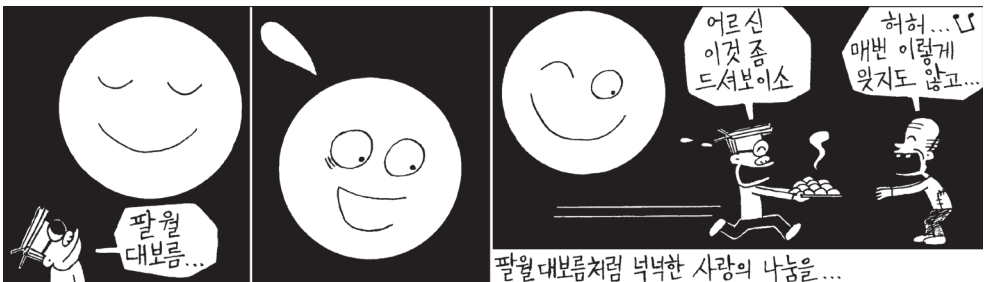
■ (故)최영수 요한 대주교님 선종 5주기 미사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8월 31일(일) 오전 10시 교구청 성직자 묘지에서 제9대 교구장 (故) 최영수(요한) 대주교님 선종 5주기 미사를 봉헌하시고, 미사 후 유가족들과 함께 연도를 바치셨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9월 8일(월) 군중후원회 신평성당 미사는 추석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군위묘원 중추절 미사

9월 8일(월) 11:00

성소 | 피정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24차: 10.3(금)~5(일)

325차: 11.21(금)~23(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문의: 대구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힐데가르트 영성 피정

입문: 9.13(토) 15:30~14(일) 16:30

심화: 9.20(토) 15:30~21(일) 16:30

장소: 베네딕도영성관, 회비: 6만 원

문의: 툇핑포교베네딕도수녀회,

313-3425

7박 8일 거룩한 독서 (LD) 피정

기간: 9.26(금)~10.3(금)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문의: (054)973-4835 / (010)3542-4835

교육 | 모집

청년 Vacare Lectio Divina모임

첫모임: 9.16(매주 화) 19:00

장소: 삼덕성당 옆 포교베네딕도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9.12(금) 17:30~14(일)

4박 5일: 10.20(월) 14:00~24(금)

8박 9일: 9.22(월) 14:00~30(화)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8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가을정기 음악회

일시: 9.14(일) 15:00

장소: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 대강당

내용: 오르간-조르디 피게 신부(OSB)

바이올린-용 베리니가 수녀(SPC)

주최: 성베네딕도 왜관수도원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일정: 작은음악회 등)

출발: 9월 20, 27일 / 10월 4, 11, 25일 /

11월 8, 15, 22, 29일 / 9:00, 계산성당

버스이동 / 2만 원(중식제공) 단체 신청가능

주최: 칠곡군 / 대구PBC, 251-2610

50차 선교대학 개강

일시: 9.20(토) 10:30~16:30

장소: 계산문화관, 회비: 5천 원

주제: 감동선교, 강사: 이판석 신부

마감: 9.14(일) 선착순 50명

신청: 가두선교단, 781-6100

16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3차: 9.20(토)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해외봉사 인증서(학점인증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자율형사립고 대건고 신입생 모집

설명회: 1차 9.20(토) 14:00, 대건고

2차 10.18(토) 14:00, 대건고

원서접수: 11.4(화)~7(금)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입학문의: 638-9332

국가자격 무시험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9.20(토)~12.14(일)

모집: 야간 40명(300시간)

교육: 월·수·금 18:30 / 일 14:00

자격: 학력 남녀 나이 무관 / 모든 교육

문의: 대가대 장례지도사교육원, 660-5557

16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신규교육 모집

기간: 9.25(목)~26(금), 4층 마리아홀

선착순: 30명, 교육비: 3만 원

대구은행, 508-10-349316-9, 장혜자

문의: 940-7059, 7415(입금후 전화)

모래놀이치료사 기초교육 및 사례발표 교육

기간: 10.3(금)~5(일), 계명문화대학교

강사: 김보애 박사, 윤복남 교수, 박지선 수녀

주최: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문의: (010)6231-6062 / (010)4600-2433

프란치스카눔 교육생 모집

과목: 발성법, 가곡교실, 키보드반주법

장소: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문의: (070)4266-0047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대구연세안과

· 아이라식 · 안내렌즈
· 노안수술 · 백내장수술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의대교수 원장 박승원(소시모)

☎(053)626-8881~5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승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손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일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JINSUNG **진 성 건 축**
Architects & Interior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전원주택

대표/건축사 성 호근(다니엘)
이 중 배(안드레아)

효동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리아
경산초배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애플비뇨기과
www.appleuro.com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 출판기념회

일시: 9.19(금) 17:30~19:30
장소: 매일가든(매일신문사 빌딩11층)
책 제목: 「저녁노을에 햇빛이요」

도보성지순례 및 순교자24위 시복감사미사

일자: 9.20(토), 가산산성~한티성지
미사: 15:00 예정
문의: 사목국, 250-3057

행사 | 모임

가나 피정

기간: 9.13(토) 14:00~14(일) 16:00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참가비: 1인 5만 원(선착순 30쌍)
신청마감: 9.11(목) 17:00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9월 가나강좌

일시: 9.21(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교육 | 모집

본당 평신도 청소년 사목자 연수

기간: 9.20(토)~21(일) / 마감: 9.14(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대상: 청소년 위원, 자모회원, 교리교사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

2015 베드로관(小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 학업은 무학고등학교(경북 하양 소재) 재학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keyofpeter@naver.com

노인의 날 행사

일시: 10.2(목) 11:00~16:00, 성모당
대상: 본당 65세이상 어르신인당 1천 원
일정: 대주교님 미사, 성가경연대회
마감: 9.12(금), 공문참조 / 중식제공
문의: 사목국 노인담당, 250-3076

대구소공동체의날 개최 및 수기공모

소공동체의날: 10.18(토) 10:00
장소: 교육원 다동 대강당
회비: 5천 원, 마감: 9.30(화)까지
수기공모: 소공동체에 활동 체험수기
공모기간: 9.12(금)까지, 문의: 250-3056

평신도신학교육원 신학 성경 수강생 모집

교회론, 미사와 가톨릭신앙, 철학, 여성학, 그리스도교미술, 성경인물40인, 부모교육, 복음의기쁨, 신앙 역사와 문화, 수도원순례, 신구약성경과정, 성경입문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제22회 순교자현양 주일학교 학생 백일장

일시: 9.21(일) 13:00
신청: 9.14(일) 17:00
장소: 관덕정순교기념관
문의: 관덕정, 254-0151

채용 | 안내

교구청 전산실 직원 채용(1명)

자격: 서버 및 네트워크 관련 경력자
서류: 이력서, 자필소개서, 학력증명서
교적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마감: 9.17(수) 서류전형 후 면접
우편접수처: 교구 사무처, 문의: 250-3093

군위묘원 안내

추석당일에는 장례를 하지 않습니다.
묘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교구청 관리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9.23~12.16(매주 화, 8시간)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백준현(안드레아), 배운주(소피아)
문의: 253-9550

국내 최초 「아픈증세 상담하고 좋은의사 소개하는」
LDK 의원
원장: 병리전문의 **범여내거리 4번 출구**
이동구 (마타이) Tel. 053)755-7775
전 대구의료원 원장 www.ldkclinic.com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훈수/예단/수 /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재실리아), 강운정(아레스)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회식 채용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서류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름즈스 맞은편 / 범여동 경신교 입구

일본 성지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4월) / 오이타, 유후인 (4월)
※ 출발일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조 철 레(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주)성지여행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천락(리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9시~밤 9시 까지
☎ 260-7777 내선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정영(구.달성군청지리)

SINCE 1975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